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2017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전년대비 9% 증가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잉커우항, 국경 간(과징)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서비스 개시
2. 미얀마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일본과 중국의 상이한 행보
3. 사이버공격 당한 머스크사, 10일만에 전체 IT 인프라 재구성

명사 스피치

"Innovative tech solutions are the way forward in the 21st century, and we're equipping ourselves with an effective platform to grow into new sectors where technology can maximize efficiencies and enable us to deliver transformational products and services."

Ahmed Bin Sulayem DP World Group Chairman
(2018. 2. 2. / Ship Technology)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17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 전년대비 9% 증가

러시아 지역별 항만 물동량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 www.morport.com/rus

- 2017년 러시아 항만 물동량은 7억 869만 7천 톤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음
 - 석탄은 1억 5,440만 톤(+13.4%), 컨테이너 화물은 4,820만 톤(+13%), 곡물은 4,780만 톤(+34.7%)을 기록했으며, 건화물 총 물동량은 11.1% 상승한 3억 7,290만 톤을 기록했음
-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오히려 해외식품 수입의존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설탕비트, 돼지고기, 치즈, 옥수수, 밀 등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 밀 생산량은 8,300만 톤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 1위 밀 수출국이 될 전망으로 분석됨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생산량 또한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4억 1,400만 톤에 달했음
 - 석유는 2억 5,320만 톤(+11.1%), 석유제품은 1억 4,150만 톤(0.5%), LNG 1,470만 톤(+8.8%)을 기록했음

참고자료 : <http://www.morport.com/rus/news/document1987.shtml>, 2018.02.20.

김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잉커우항, 국경 간(과징)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서비스 개시

- 지난 2월 6일 잉커우항 국제검사장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스마트 분류대를 통해 스캔, 통관, 검사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잉커우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직접우편 배송방식의 해운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해상운송 서비스는 기존 항공운송서비스에 비해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라오닝신실크로드국제물류유한회사의 차중지에(齐中杰)대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여러 방식 중 해운을 이용한 직접우편 배송방식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제품을 구입해 잉커우항을 통해 집까지 직접 운송되는 방식”이라고 소개함
 - 또한, 해운 직접우편 배송방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화물이 수입되는 동시에 동북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이 이 루트를 통해 각 지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밝힘
 - 치 대표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북아시아 내 가장 큰 규모의 물류 허브로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택배산업의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힘
- 잉커우항 당국은 잉커우자유무역시범구의 정책적 장점과 고효율의 통관방식, 연결성 등의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허브 건설에 박차를 가함
- 해운을 이용한 직접우편 배송방식은 잉커우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잉커우항의 대외개방의 주요 수단이기도 함
 - 전자상거래와 스마트 항만물류 간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협력과 공동 건설 및 자원 공유 등 많은 협업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 잉커우항은 향후 특급우편배송방식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판진시와 선양항 관련 자원을 활용해 합자방식의 합작모델로 모스크바 벨리라스트물류센터에 있는 잉커우항무국과 결합하여 보세 수입방식의 해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우리나라 인천에 해외창고 건설을 준비하는 등 진정한 물류 허브 구축과 물류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고자료: shippingchina.com, 2018.2.14.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미얀마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일본과 중국의 상이한 행보

- 최근 미얀마 물류시장이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길목으로 여겨지는 등 주요 국가들의 관심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미얀마 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미얀마 물류시장은 세계 3대 신흥 경제권인 중국, 인도, 아세안과 인접해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44%, 세계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사업기회가 가장 큰 장점임
 - 중국은 석유, 가스 수입을 위한 운송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교역로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인도는 미조람(Mizoram)주 등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미얀마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통해 운송경로 확보에 주력
 - 즉, 미얀마는 장기적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와의 협력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미얀마 내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와 협력해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미얀마 물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와 일본 국제 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공동으로 양곤 인근의 필라와(Thilawa) 경제특구를 조성한 후 합작회사를 설립해 개발 및 운영을 위임했음
 - 필라와 경제특구 내 마루베니, 미쯔비시 등 일본의 주요 제조 기업이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물류 센터를 조성하는 등 미얀마 물류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아마토 그룹과 미얀마 현지 기업인 아이 인터내셔널 그룹은 미얀마 내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 약 50만 달러의 자본을 투입했음
- 반면에 중국은 과거부터 미얀마의 주요 교역국 역할을 유지해왔으며, 미얀마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미얀마 물류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미얀마는 중국으로 부터 주로 기계류, 전자부품 및 소비재 등을 수입하고, 농산물, 광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파이프 라인을 통한 원유수출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음
 - 미얀마의 차우푼(Kyaukpau)항에 연결된 파이프 라인은 중동 및 아프리카로 부터 원유 및 광물 수입을 위한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유 수입이 늘어나면서 중국-미얀마 간 해상운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은 미얀마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온 지배적인 관계와 미얀마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얀마 물류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참고자료 : www.thediplomat.com, 2018.2.19. / www.dealstreetasia.com, 2018.2.19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사이버공격 당한 머스크사, 10일만에 전체 IT 인프라 재구성

- 지난 6월의 전 세계 사이버공격으로 거대 선사인 머스크사가 3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음
 - 전 세계를 뒤흔친 랜섬웨어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일부 중단되면서 컨테이너 물류에 차질을 빚음
 - 손실은 대부분 매출 감소, 추가 근로, 수습 비용 등으로 발생했고 IT 없이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물량이 20% 감소함
- 머스크사의 Jim Hagemann Snabe 회장은 전체 IT 인프라를 10일만에 재설치 해야만 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밝힘
- 담당 연구자들은 악성코드인 와이퍼(wiper)를 가진 랜섬웨어는 빠르게 퍼지고 쉽게 손상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즉시 전체 IT 인프라 교체를 요청함
 - 4천 대 이상의 서버와 4만 5천 대의 PC, 2천 개가 넘는 응용프로그램들을 교체해야 했음
- 단지 10일 만에 회사 내 전체 IT 인프라를 재설치한 머스크사의 IT 인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단시간에 복구한 것은 다행이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함

■ 참고자료 : <https://www.supplychaindive.com>, 2018.02.20.

김호재 연구원

051-797-4686, hj_kim@kmi.re.kr